

서아루·김금순 “올 시즌 플레이오프 도전할 것”

광주도시공사 女핸드볼

2024~2015 H리그 임하는 각오

팀과 개인 도약 목표로 준비서 “윙 부문 베스트7 수상할 것” 김 “최고의 수비수로 거듭날 것”

“이번 시즌은 새로운 동료들과 함께 부상 없이 플레이오프에 진출하겠습니다”

광주도시공사 여자핸드볼팀의 주축 선수인 서아루(레프트윙)와 김금순(피벗)이 내년 1월1일 개막하는 ‘신한 SOL Pay 2024~2025 핸드볼 H리그’ 여자부를 앞두고 이같은 각오를 다졌다.

서아루와 김금순은 이번 시즌 팀과 개인의 도약을 목표로 굳은 의지를 다지며 팬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길 준비를 하고 있다.

서아루는 초등학교 5학년 체육 시간에 공 던지기 실력을 본 체육 선생님의 권유로 핸드볼을 시작했다. 대전유천초와 동방여중·동방고를 거쳐 2015~2016시즌 광주도시공사에 입단하며 실업 생활을 시작했다.

10년 동안 한 팀에서만 뛰며 터춤패감으로 자리 잡은 서아루는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갔다. 벌써 10년이 된 게 실감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서아루는 센터백과 레프트백에서 뛰다



광주도시공사 여자핸드볼팀의 주축 선수인 서아루(왼쪽)와 김금순이 지난 2023~2024 핸드볼 H리그 경기를 뛰고 있는 모습. 한국핸드볼연맹 제공

가 5년 전 오세일 감독의 권유로 윙으로 포지션을 변경했다.

“윙이 잘 맞는 것 같다”며 자신의 장점을 살린 속공과 좁은 각도에서도 슈팅 기회를 만드는 데 강점을 보인 서아루는 지난 시즌 70% 이상의 슈팅 성공률로 팀의 든든한 해결사 역할을 했다.

서아루는 “팀이 어려운 상황이라 공이 오면 어떻게든 골을 넣어야겠다는 생각으로 집중했다. 지난 시즌 슛 하나하나에 심혈을 기울였다”고 회상했다.

김금순은 초등학교 5학년 때 체육을 하러 가던 중 감독 선생님의 눈에 띄어 핸드볼을 시작했다. 황지초, 황지여중, 황지정

보산업고를 거쳐 2015~2016시즌 대구시청에 입단했다. 이후 3년간 대구시청에서 뛰다가 트레이드되면서 광주도시공사로 이적, 현재까지 팀의 중요한 선수로 활약 중이다.

김금순은 백과 윙을 모두 경험한 후 피벗으로 자리를 잡았다. 현재는 공격보다는 수비에 더 비중을 두고 팀의 방패 역할을 수행하며 6년 차 피벗 선수로 안정된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다. “수비 쪽에서 가장 잘하는 선수가 되고 싶다”고 말하는 그는 팀의 든든한 수비 자원이자 정신적 지주다.

광주도시공사는 지난 2023~2024시즌 베테랑 선수들의 줄부상으로 어려운 시즌을 보냈다.

서아루는 “젊은 선수끼리 뽀푼 뽀푼 더 열심히 했다”고 회상하며 “팀워크가 우리 팀의 가장 큰 강점”이라고 말했다. 김금순 또한 “부진했던 성적이 아쉽지만, 그 과정에서 벤치 선수들도 좋은 경험을 쌓았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두 선수는 팀워크를 기반으로 부상 없는 시즌을 보내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김금순은 부상 방지를 위해 근력과 체력을 보강하는 데 중점을 두고 훈련했다. 팀이 젊어진 만큼 더 빠르고 스피디한 경기를 기대해도 좋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서아루는 이번 시즌 팀을 플레이오프에 진출시키기 위해 개인적으로 윙 포지션에서 가장 많은 골을 넣고 베스트7에 선정되고 싶다는 바람을 내비쳤다. 김금순 역시 플레이오프 진출 목표에 맞장구치고 최고의 수비수로 광주도시공사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는 각오다.

H리그의 변화도 두 선수에게 긍정적으로 다가왔다. 선수 입장 이벤트와 다양한 팬 소통 프로그램 덕분에 더 많은 책임감을 느끼게 된다고 한다. 김금순은 “팬을 위한 유니폼 판매와 같은 개인화된 마케팅이 보장되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두 선수는 팬들과 동료들에게 감사와 다짐도 전했다. 서아루는 “새로운 동료들과 손발을 맞춰 좋은 성적을 보여드리겠습니다”고 했고, 김금순은 “광주도시공사는 언제든 다시 정상으로 올라갈 능력이 있는 팀이다. 팬 여러분의 응원 속에서 빠르고 젊은 패기의 경기를 선보이겠다”며 응원을 부탁했다.

광주도시공사의 두 베테랑 선수, 서아루와 김금순의 열정과 경험은 이번 시즌 팀의 큰 원동력이 될 것으로 보인다. 부상 없는 시즌, 그리고 플레이오프 진출이라는 목표를 향해 도약을 준비하는 그들의 도전은 팬들에게 큰 기대감을 안겨주고 있다. 최동환 기자 cdstone@jnilbo.com

2025 프로야구 3월22일 개막

KIA, 광주서 NC와 시즌 출발

2025시즌 KBO리그가 내년 3월22일 개막한다. KIA는 광주에서 NC와 2025 시즌을 출발한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지난 20일 2025 KBO 정규시즌 경기 일정을 최종 확정해 발표했다.

내년 KBO리그는 3월22일 개막해 팀당 144경기씩 총 720경기를 소화한다.

개막전은 2024 시즌 최종 팀 순위 상위 5개 팀의 홈 경기로 편성돼 광주(NC-KIA), 잠실(롯데-LG), 문학(두산-SSG), 수원(한화-KT), 대구(키움-삼성) 구장에서 2연전으로 대장정의 막을 올린다. 4위 두산은 3위 LG와 구장 중복으로 원정 경기가 편성됐고, 6위 SSG의 홈 경기가 편성됐다.

5월 5일은 월요일이지만 어린이날인 점을 감안해 경기를 편성했다. 경기는 격년제 편성 원칙에 따라 잠실(LG-두산),

고척(KIA-키움), 대전(삼성-한화), 사직(SSG-롯데), 창원(KT-NC) 구장에서 5월 5~7일까지 열린다. 이에 따라 5월 8일은 이동일로 편성됐다.

KBO 올스타전은 7월 12일 대전에서 개최 예정이다. 올스타전 휴식 기간은 7월 11~16일까지로 기존 4일에서 6일로 확대됐다. 정규시즌 후반기는 7월 17일부터 4연전으로 시작된다.

개막 2연전과 올스타전 휴식기 직후의 4연전을 제외한 모든 경기는 3연전으로 편성돼, 8월 31일까지 팀당 135경기가 우선 편성됐다. 미편성된 45경기(팀당 9경기)는 우천 등으로 취소되는 경기와 함께 추후 편성될 예정이다.

한편 팀간 이동거리 및 마케팅적 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격년제로 홈 73경기-원정 71경기를 편성하는 원칙에 따라 두산, KT, SSG, 롯데, 한화가 홈 73경기-원정 71경기로 편성됐다.

최동환 기자



임기영(오른쪽)이 지난 21일 광주-기아 챔피언스 필드에서 FA 계약을 체결한 뒤 심재학 KIA타이거즈 단장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KIA타이거즈 제공

광주시 장애인생활체육 어울림파크골프대회 성료

세계장애인양궁선수권 성공 기원

“2024 광주시 장애인생활체육 어울림파크골프대회”가 지난 20일 광주 영주파크골프장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이번 대회는 2025년 세계장애인양궁선수권대회 성공 개최를 기원하고 장애인생활체육 파크골프 붐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회에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으로 구성된 선수와 운영요원 등 총 100여명이 참석해 어울림 친선경기로 진행됐다.

이날 경기는 종합 타수를 기준으로 단체전 1위부터 3위를 가려내고, 동행상 등

다양한 시상으로 참가자들의 화합과 소통에 중점을 두었다.

한상득 광주시장장애인체육회 수석부회장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려 소통하는 것이 이번 대회의 참된 의미”라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참가하는 세계양궁선수권대회 동시 개최는 2011년 이탈리아 토리노, 2019년 네덜란드 스토크토엔보스에 이어 광주시가 역대 세 번째다. 세계장애인양궁선수권대회를 잘 준비해 민주·인권·평화 도시 광주를 세계 속에 드높일 수 있도록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최동환 기자

FA투수 임기영, KIA와 3년 더 동행한다

3년 총액 15억원에 계약 “내년 2연패에 보탬될 것”

자유계약선수(FA) 투수 임기영이 KIA타이거즈와 동행을 이어간다.

22일 KIA타이거즈에 따르면 지난 21일 임기영과 계약 기간 3년에 계약금 3억원, 연봉 9억원, 옵션 3억원 등 총액 15억 원에 FA 계약을 맺었다.

경북출신 임기영은 2012 신인드래프트 2라운드 전체 18순위로 한화 이글스 지명을 받아 프로 데뷔해 지난 2014시즌 FA 송은범의 보상 선수로 KIA 유니폼을

입었다.

임기영은 11시즌 동안 통산 285경기에 등판, 51승 59패 4세이브 21홀드 평균자책점 4.80을 기록했다. 지난 시즌에는 64경기 동안 82이닝을 던져 4승4패 세이브 16세이브 평균자책점 2.96을 기록하며 팀에 헌신했지만 올 시즌에는 부상으로 37경기 45.2이닝에 그치면서 6승 2패 2홀드 평균자책점 6.31의 아쉬운 성적을 남겼다.

임기영은 “무엇보다 다른 구단으로의 이적은 생각하지 않았다. 좋은 조건을 제시해준 구단에 감사하고, 열정적인 KIA

팬들의 합성을 다시 들을 수 있게 되어 기쁘다”며 “올 시즌은 기대에 못 미치는 성적으로 팬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컸는데, 지금부터 잘 준비해서 팀이 한국시리즈 2연패를 하는데 도움이 되는 선수가 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KIA 관계자는 “임기영은 선발, 불펜 가리지 않고 팀이 필요로 하는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헌신적인 선수이다. 내년 시즌 동료 선수들과 함께 마운드 전력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동환 기자